

박주현 교수, 논문 4편 발표 주목

전북대, 코로나19·조국 사태 언론 보도 특징과 차이 분석 등

전북대 박주현 겸임교수(신문방송 학과)가 KCI 학술지에서 잇따라 4 편의 전공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최근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한국소통 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부울경언론학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국면별 보도 기사의 특성과 정보(취재)원 형식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지역언론학회가 발행하는 '언론과학연구' 제20권 2호(2020년 6월)에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치지널리즘(Goeth Journalism)과의 관계 연구'를 단독저자로 게재됐다.

이 논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험 이슈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정보(취재)원, 프레임의 특징과 차이점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한겨레, 경향신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국면별 보도 기사의 특성과 정보(취재)원 형식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언론학회가 발행하는 '언론과학연구' 제20권 2호(2020년 6월)에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치지널리즘(Goeth Journalism)과의 관계 연구'를 단독저자로 게재됐다.

이 논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



관 후보 지명 이 전과 이후 제기 됐던 의혹과 논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과정을 보도한 국내 주요 신문사들의 이념적 성향과 보도행태에서 나타난 차이 저널리즘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또 한국소통학회가 발행하는 '한국 소통학회' 제19권 3호(2020년 8월)에서는 SNS를 활용한 정보탐색 및 의제파급(Agenda-Rippling)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들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연구를 통해

SNS 확산과 함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탐색과 의제파급 행태를 규명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민 학생(중국 유학생)과 함께 부울경언론학회가 발행하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권 2호(2020년 5월)에 '한·중국 대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특성과 제3자 효과에 관한 연구: 웹정보 이용 중심으로'를 공동으로 연구·제작했다.

이 논문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웹정보에 대한 지각적 편향에 대한 제3자 효과 이론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행태의 차이와 신뢰도 등을 고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지역사회 문제해결 리빙랩 론칭세미나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8일 전주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개시를 위한 론칭세미나(Launching Semina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론칭세미나는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 학과 총 33명의 학생들이 온라인(webex)으로 참석한 가운데 ▲리빙랩 방식의 특장점과 효과적인 운영방법(주송 전주대 LINC+사업단장) ▲지역혁신과 리빙랩(이재민 LINC+사회적경제협업센터장) ▲전주시 생활환경문제 개선사항(국현호 주무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전주시내 도로변과 골목에 무단으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 결과, 향후 전주시에서 생활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했다. 전주대는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재래시장, 학교 교실, 회사 근무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용주체(지역주민), 산업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는 전주대학교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학민관 협력 방식의 리빙랩 프로젝트로, 전주시 복지환경국(민선식 국장), 전주대 LINC+사업단(주송 단장), (주)에버미리를(박철 대표), 전주대 농생명융합기술원(최규홍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8일 전주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개시를 위한 론칭세미나(Launching Seminar)를 개최했다.

2021학년도 유·초·특수학교 교사 211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c.go.kr)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시험의 모집인원은 유치원 교사 100명, 초등학교 교사 88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15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10명 등 총 211명이며, 전년도보

다 10명 감소했다. 원서접수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11월 7일, 제2차 시험은 2021년 1월 13일 ~ 1월 15일 까지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1년 2월 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c.go.kr, 일린마당·고시/공고)를 통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코로나19

클린스포츠 특위, 도내 실업팀 전수조사 마쳐

전북체육회의 클린스포츠 특별조사 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가 군산시청 운동팀을 끝으로 도내 실업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번 전수조사는 (성)폭력, 가혹행위, 갑질 등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유인탁 사무처장은 "전북체육회는 선수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질 UP"

군산기계공고, 거점학교 선정

교육부 공모, 3년간 3억원 지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김종천)가 교육부 공모를 통해 3년 동안 3억 원(1년에 1억원, 추가 2년 운영 예정으로 총 5억원)의 지원을 받아, 취업을 원하는 도내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9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따르면 교육부 공모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에 선정돼 도내マイス터고나 특성화고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은 미취업 혹은 군전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이력(스펙)을 관리/모니터링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의 지역 거점학교 역할을 맡아, 군산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력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취

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이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은 자신의 이력 및 경력을 시간적으로 순서화하고 온라인상에 자격증과 스펙을 등재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과 인원을 졸업한 학교(교장이나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채용이 곧바로 이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종천 교장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도내의 경기 현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등의 기반 산업에 직업계고 졸업생들과 기업이 좀 더 쉽게 연계돼 청년실업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계·전기시스템제어분야マイス터고등학교 2010년 이후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우수 강소기업에 많은 취업자를 배출해 왔다. 3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과 2년 연속 경찰청으로부터 '학교 폭력 없는 준법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코로나 극복 나눔장터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 선정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유연 센터장)는 오는 15일 센터 주차장에서 코로나 극복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사업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족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지장문화 확산 필요에 따라 2019년 시범실시 이후 올해 운영기관을 재선정하면서 참여하게 됐다.

올해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인증 전후 컨설팅,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함께하는 동행 사업(공동체 사업) 등이다. 도내 14개 시군 가족친화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기 인증 기업 대상 가족친화 인증 전후 컨설팅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 찾아가는 교육은 현재 완료됐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함께 하는 동행 사업(공동체 사업)의 경우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전 예약 해야 된다.

이날 (주)정석케미칼 대지인병원, (주)

그룹, 주식회사 참고을 농업회사법인(주) 한우물 등 가족친화 기 인증기업과 인증을 준비하는 가족친화기업 등 도내 20여개 기업이 함께 참여, 기증된 물품은 기업홍보와 함께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판매수익금은 10월 중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봉사자들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내 취약한 부분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에 전액 사용된다.

코로나 극복 나눔 장터에 동참한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회장은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부여받았다"며 "당시 법적근로시간 준수, 보건휴가, 육아휴직 등 최소 충족 요건에 맞춰야 하는 이로사항도 있었지만 이제는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발전하는 가족을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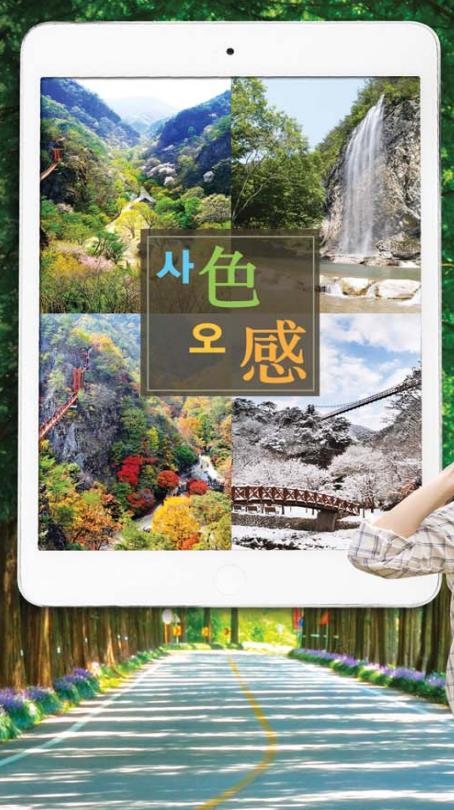
더불어 "이번 나눔장터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가 확산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센터 홈페이지(jwc.re.kr)이나 취업지원팀(063254-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여행,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